

금융시장 안정위해 95조 유동성 지원… 자금경색 해소 기대

금융위-5대 금융지주 간담회

“내부적으로 유동성·건전성 지원
지주계열사에 대한 신뢰 강화를
中企 등 실물부문 자금 공급해야”

KB금융, 신한금융 등 5대 금융지주
사가 올해 말까지 총 95조원의 유동성
을 공급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
시장안정을 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금경색을 해소
하기 위한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
성 공급을 요청한 것.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
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
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를 중심
으로 ▲시장안정 ▲실물경제 ▲취약차
주지원 등 시장원칙에 기초한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자금시장의 원활한 순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지주 시장안정 지원 계획〉

시장안정화조치	5대지주 지원규모
1. 시장 유동성공급 확대	73조
2. 채안펀드·증안펀드 참여	12조
3. 지주그룹내 계열사 자금공급	10조
총합	95조

/자료=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롯한 금융지주 회장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뉴스

김 위원장은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요청했다.

그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유동성과 건전성을 지원
해 지주 계열사에 대한 시장 신뢰를 강
화해 달라”며 “나아가 금융시장 차원에
서도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 기능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등 자금
수요가 높은 부분에 자금을 공급해 달
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로 자
금이 막히지 않도록, 중소기업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실물부문에 자금을 공급
해 달라”며 “실물공급, 자금공급을 위
해 지속적으로 신용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거나, 신규 자금조달에 어려움 있는
등 제도권금융에서 탈락한 취약차주 지
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는 올해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
시장유동성 공급 73조원 ▲채안펀드·증
안펀드 12조원 ▲그룹내 계열사 자금공
급 10조원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민간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정부도 정부의 역할을 하면 효과

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
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
가 많아 설불리 안정될 것이라고 단언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른 적이 없고 환율도 마찬가지
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정
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대 금융지주가 건전성과 유
동성 공급 능력이 좋고, 경제 주체들

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오늘 모임을 통해 상의를 한 것”이라
며 “기업 유동성도 너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장과 지주회장, 은행
연합회장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간담
회를 격주로 열고 시장상황을 점검한
다. 실무진 간 상시 회의채널도 구축해
시장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
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제로코로나에 ‘집단탈출’… 경제타격 불가피

차이나 뉴스 & 리포트

中 폭스콘, 폐쇄루프 활용 생산
먹을 것 부족, 비위생적 환경에
직원들 탈출…국제경제에 타격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대규모 탈출극을 벌이면서
엄격한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를 고수해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선
전이 빛나고 있다.

소위 ‘폐쇄루프’를 활용한 생산방식
은 폭스콘과 같은 대기업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게 증명됐고, 폭스콘의 생산차
질은 물론 정저우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1일 차이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정저우
공장 대신 대체 공장을 활용해 출하
량 감소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정저우 폭스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이다. 이곳 직원
들의 집단 탈출극이 알려진 것은 위쳇
등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올라오면서다.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공장 울타리를
넘거나 집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나 시



지난 29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폭스콘 공장
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탈출하고 있다.

/AP·뉴시스

골길을 걷는 모습이다.

정저우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면서
폭스콘은 지난 19일부터 외부와 차단하
는 폐쇄루프로 운영되고 있었다.

폐쇄루프는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
림픽 당시 적용한 방역 조치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용 숙소와 전
용 차량만을 이용해 외부와의 접촉을
막는 방법이다.

국제 행사에선 효과적이었던 폐쇄
루프가 폭스콘 직원들에게는 지옥이

됐다. 국가가 주최한 행사에서는 필요한 모
든 물품과 음식이 충분히 공급됐지만
직원 규모만 30만명에 달하는 폭스콘
공장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환경은
비위생적이었다. 공장 내 코로나19 확
진자들이 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도
커졌다.

논란이 일자 폭스콘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및 격리 대
책이 나왔다.

폭스콘은 “일부 직원들의 귀향을 원
한다면 막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
력해 인력과 차량을 편성해 질서정연한
귀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
다. 지역 당국들은 귀향한 노동자를 대
상으로 7일 간 집중 격리, 3일 간 자가격
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단 탈출 사태로 애플은 물론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한 언제든 공
급망은 악화될 수 있단 얘기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는 중국의 제
로 코로나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당분간 수출 증가세 전환 쉽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가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글
로벌 정보통신(IT) 경기 위축으로 수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
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 상
승세가 2년 만에 꺾였고, 무역수지는 7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
의를 열어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하강,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 세계 교역
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액
은 52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
지 이어 오던 수출 증가세가 2년 만에
꺾였다. 수출 감소액 32억 달러의 77%
가량은 IT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
석됐다.

추부총리는 “향후 우리 수출이 빠르
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신성장 수
출동력 확보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주
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
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추부총리는 “5대 분야는 우리가 세
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
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
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며 “정부는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
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
분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
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
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한은, 한계기업 18.6%까지 증가 가능성

» 1면 ‘돈줄 막하자 은행으로’ 서 계속

한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1년 만에
111.7%에서 117.9%로 6.2%포인트(p) 늘
었다. 베트남(7.3%p)에 이어 두번째로 빠
르게 증가한 것이다. 한국기업의 부채비율
은 홍콩(27.8%), 싱가포르(161.9%), 중국

(157.1%)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용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환율 및 원
자재가격 상승이 맞물릴 경우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최대
18.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실기업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증

가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경
기회복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
로 한계기업 비중이 줄었지만, 올해 대
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한계기업이 상승
하고 이들의 부실위험도 증가하고 있
다”며 “정상화 가능성에 낮은 한계기업
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어 이들의 잠
재 부실이 이연·누적되거나 않도록 기업
여신 심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
했다. /나유리 기자